

2024
고1
3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| 두암육가 지문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어저(감탄사)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

[굳은 이 다 빠지고 겉던 털이 희었네(색채 대비. **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비적 표현이라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]([]: 화자의 늙은 모습)

어우와(감탄사)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*

<제1수>

[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пят 지나

서른 마흔 한 일 없이(화자가 이룬 것이 없음을 드러냄.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) 선 예순 넘는단 말인가]([]: 시간이 빨리 흘렀음을 나타냄. 화자의 나이가 예순이 넘었음을 알 수 있음.)

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하고 늙었느냐

<제2수>

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(과거 급제를 한 것이 부질없음.)

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(자신이 농사를 지었더라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임. 현재 넘치지 않은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남.)

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쇠(이제 늙어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남.)

<제3수>

너희(청자. 젊은이들)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(늙음에 대한 탄식. **늙음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젊다 하고 믿지 마라(청자에 대한 당부) 나도 일찍 젊었더니

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(음성 상징어) 늙어지면 거짓 것이*(허망함)

<제4수>

[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(과거 급제)인들 마다 할까

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*]([]: 화자는 재산이나 과갑을 마다하지 않았지만, 재산이나 과갑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 없이 운수와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음.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남. **화자의 인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(재산 축적과 과거 급제와는 달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임.)인가 하노라

<제5수>

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

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(화자는 자신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'너희'에게 착한 일을 권유하고 있음. **화자의 당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이 작품의 화자는 단순히 늙음에 대해 탄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.**)

청년의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(청년이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.)

<제6수>

- 김약련, 「두암육가」

*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: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,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로다.

*거짓 것이: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.

*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: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.

핵심 정리

- 갈래: 연시조, 정형시, 탄로가
- 성격: 교훈적, 계몽적
- 주제: 늙음에 대한 한탄과 젊은이들에게 하는 당부
- 특징
 -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냄.
 - 설의적 표현,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냄.
 -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냄.
 - 청자를 설정하여 청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함.

이해와 감상 1

하얗게 센 머리를 들여다보며 대장부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드러내는 한편,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할 일과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. 화자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와 같이 운수나 하늘의 뜻에 달린 일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권유하며,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.

이해와 감상 2

「두암육가」는 안동 문화권의 속하는 영주에서 창작된, 육가형 시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이다. 기본형인 육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, 내용적으로 상삼수(上三首)와 하삼수(下三首)로 구분된다. 상삼수의 중심 내용은 자탄(自嘆)이다. 자신의 육십 인생을 되돌아보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. 하삼수의 중심 내용은 계자(戒子)이다. 자식들에게 젊음을 너무 믿지 말고 착한 일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.